제 5 강 이기주의 :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윤리학적 이기주의 - 이기주의는 부도덕한가?

◈윤리학적 이기주의◈

* 도덕의 일반적 함축 :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.
  ⇒ 타인의 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
  - 인위적 의무 : 약속
  - 자연적 의무 : 우리 행동 때문에 도움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기에

윤리학적 이기주의 :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.
  ⇒ 이기주의가 유일한 도덕적 의무이다.

(1) 윤리학적 이기주의의 주장

1) 인간의 유일한 의무는 자신의 이익만을 증진시키는 것이다.
  - 자기 이익의 원리가 유일한 원리
  - 타인에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

2)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.
  - 나의 이익 추구가 동시에 타인을 도와주는 경우 가능
  - 타인을 돕는 것이 나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일 경우도 가능
  ⇒ 타인을 위한 행위 적극적 권장
  - 그 행동을 옳게 만드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합치한다는 점 때문.

3) 자기가 원하는 것, 단기적으로 많은 쾌락을 주는 것 ≠ 자기 이익 추구
  -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실제로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해야 한다.
  - 합리성을 전제
  ⇒ 이기주의가 강해질수록 합리성이 높아진다. (자본주의 논리)

※ '**합리성**'의 구분

이론적 측면 ┌보편적 이성, episteme
              └ 직관적 이성, sophia

실천적 측면 ┌도구적 이성, techne (수단적 이성)
              └ 비판적 이성, phronesis (규범적, 도덕적 이성)

(2) 윤리학적 이기주의 지지 입장

1) 개인 보호
  - 인식적 한계 : 자신의 이익과 필요는 판단할 수 있지만 타인의 이익과 필요는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
  ⇒ 섣부른 이타주의는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다.
  - 타인의 주체성 침해
  ⇒ 사생활 침해 :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살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다.
  ⇒ 개인의 존엄성 침해 : 타인을 자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들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타인을 피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.
  - "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살피라"는 원칙은 자기 파괴적
  ⇒ 모든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똑같이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

<문제점>
ⅰ) 자선 행위가 실제 존엄성과 사생활을 침해하는가?

- 굶주린 사람에게 식량을 줄 경우

ⅱ)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비이기적이다.

-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택하는 것이기에

2) 개인 생활의 성실성을 존중해주는 유일한 철학

- 이타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부정 : 개인의 생활은 희생되어야 하는 것에 불과

⇒ 이타주의는 기생적 삶의 방식

<문제점>

ⅰ) 극단적 이타주의의 문제만을 지적

- 자기 이익을 완전 무시, 이타적 행위는 항상 자기 이익의 희생을 함축
- 실제적 이타주의는 자기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모두 중요시하면서 그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존립